

The Church of Christ, Vol. 49

그리스도의 교회

49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CHURCH OF CHRIST MISSION

펴낸 날
2021년 12월 30일

펴낸 곳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8길 57-3
(화곡동)

전화
02) 2607-0645

팩스
02) 2696-1560

인터넷
thechurch.kr / christ.or.kr

이메일
administrator@christ.or.kr

eISSN 2734-1577

Printed in Korea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새번역,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흠정역 등을 함께 사용하며 원문의 뜻을 살리되, 필요에 따라 반점과 온점 등의 부호를 삽입하면서 꺾쇠 안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출판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공: J. C. Choate Publications; World Evangelism; World Video Bible School

후 원: 강남그리스도의교회(서울), 번영로그리스도의교회, 한인그리스도의교회(미국 LA); 김명수, 김무근, 김충기, 이창완, 임현자.

- 청사진 확인 / 4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담긴 영원성
- 성경 도표 / 8
하나님의 전신갑주
- 그리스도교의 역설 / 10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함
- 함께 찾는 답 / 16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 삶을 바꾸는 성경공부 / 70
제4장 긍정적인 삶의 출발점
- 떠나보내기와 떠나가기 / 74
위로가 필요할 때 내면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1/2)
-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 / 79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3/4)
- 새 노래 / 83
승리는 이것이니

성경원어산책: 니케 / 7

균형잡기: 성전과 제사장 / 37



알림: 선교회 상담실이 문을 엽니다 / 84(뒷표지)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세미나실이 상담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 우선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 상담을 주로 하되, 상담실까지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줌(ZOOM) 온라인 상담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잡지 뒷표지와 선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101-356564

예금주: (재)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추가문의: (02) 2607-0645

빌립보서 4:1-9(재번역)

- 1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 2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 3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 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5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 7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8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 9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담긴 영원성



승리를 거두려면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바로 전투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유배지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고 결정하는 것이 영혼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합니다. 바람직한 경험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능이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삶은 하나의 큰 전투일 뿐입니다. 그 전투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의 원수인지 배우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시작되어 영원히 존재할 모습에 관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등이 그 의미에 포함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는 첫 단계, 즉 도입부입니다. 호흡이 멎고 육체의 기능이 멈출 때, 이 땅에서 주어진 선택 기간도 끝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선과 악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 없이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원칙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을 경험한 후 육체를 떠납니다.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가장 좋아했는지 확인됩니다. 시간·열정·노력·돈 등 우리 몸에 지닌 것들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많이 쏟은 분야가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우리들 각자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보고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사람마다 그의 전인격이 실제로 몰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義)에 대한 갈망과 헌신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살아가는 모습과 몰두하는 분야 등이 합쳐져 위선을 드러내는 경우를 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결정은 다양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 영원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싸워 온 싸움은 육체의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 육체 스스로 치르는 전투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이 내면에서 육체를 통제하며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가 결정해야 했던 모든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다 겪어 온 일입니다. 환경의 영향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닥쳐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미혹은(즉 모든 환경적 요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을 다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고린도 전서 10:13).

자기에게 닥쳐온 미혹이 너무 커서 이겨낼 수 없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일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미혹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죄를 범하려는 욕구를 품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강도는, 죄를 범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죄를 극복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려는 욕구가 약하다면 그동안 준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 소홀은, 가까이 지낼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가까이하는 문제, 선과 악의 문제를 묵상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쪽을 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식은 사방에 있고, 구하는 사람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인터넷에 쌓여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에 고착되어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바로잡을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겠다는 의지와 결심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전투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문제, 내 삶에 작용하는 선과 악을 판별하는 문제,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눈에 담을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 등이 이 전투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삶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고통과 기쁨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여 짧은 기간 쾌락을 누린 후 거기서 파생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바람직한 결과들을 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내면의 전투를 통해,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기쁘게 하려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 자신의 육체와 내 주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면의 이성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기쁘게 하려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바라는 것을 바꿈으로써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바뀌는 일은 진리의 말씀은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영원한 앞날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투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헌신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義)에 대한 전적 헌신일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전적 몰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와 달리 악은 늘 불행만을 가져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과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끝없이 이어지는 행복

을 누릴 것이고, 가장 훌륭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은 물질적인 미혹에 맞서 승리를 거두고 끝없는 평화와 행복을 매일 영원토록 누리는 영혼들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글쓴이: 파수리

Parsley, Malcolm. "The Eternal Nature of the Victory of the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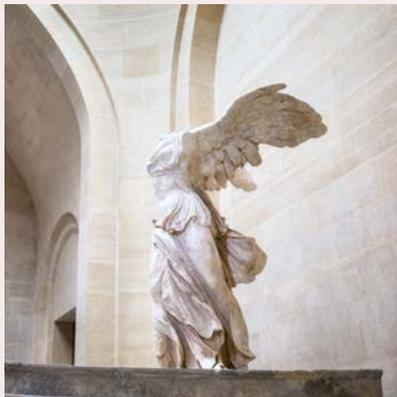
성경 원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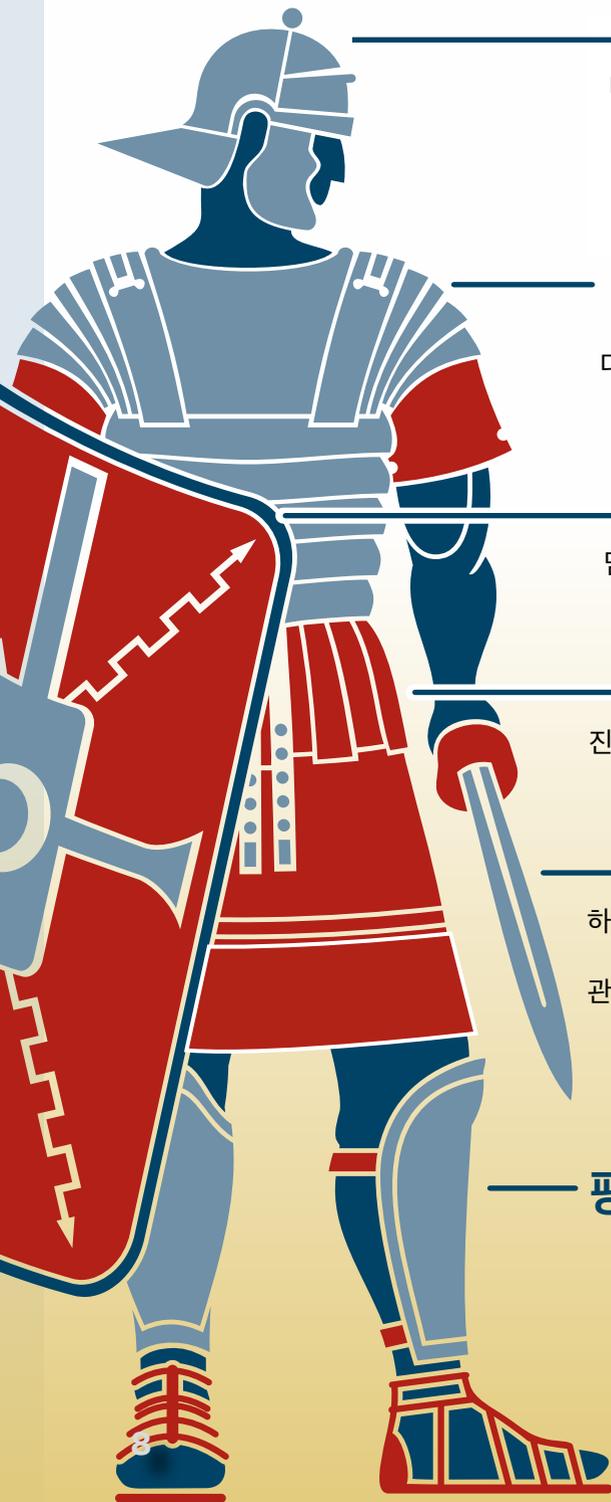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한1서 5:4).

요한1서 5장 4절 말씀에서 '승리'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 니케(víkni)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이름이기도 하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유명한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승리'와 같은 멋진 생각들을 신(神)으로 떠받들었고, 빼어난 조각상을 만들어 그 신이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며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또는 누군가)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것과(또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거나 간직하려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관심과 사랑과 감탄과 존중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우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12

의(義)의 호심경[=가슴막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23

성령의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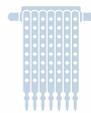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12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하나님의 전신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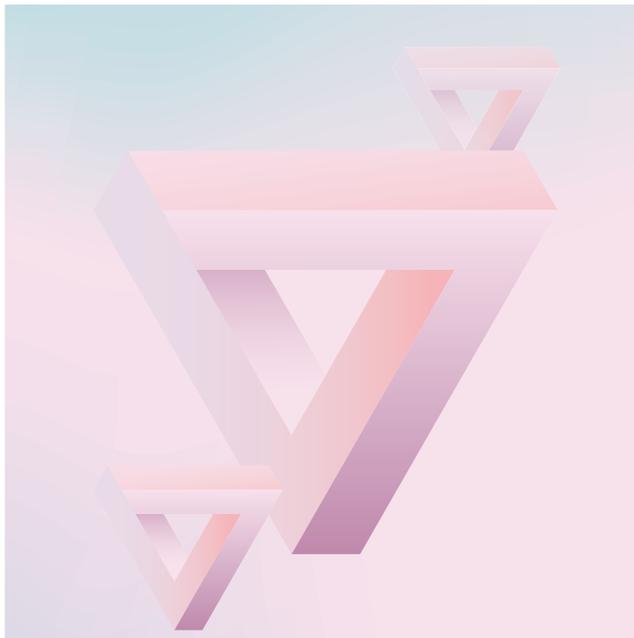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10-13**

나의 무장 상태는?

“The Whole Armor of God” (2021). *House to House Heart to Heart*, Vol. 26, p. 7.
Translated with permission.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함



사전에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된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참조: 네이버 사전). 역설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며, 특정 사실에 관해 깊이 묵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다룰 역설은, 그리스도인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21절의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한된 사명’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같은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당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되돌아보는 성경 속 역사

하나님께서서는 다양한 피조물을 통해 여러 가지 큰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개미는 일하는 방법과 함께 게으르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잠언 6:6-9). 그렇다면 성경 역사에서는 뱀과 비둘기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뱀은 (1) 사악함, (2) 위험과 처벌, (3) 목숨, (4) 아름다움·교활·지혜 등을 다양하게 상징합니다.

- **사악함의 상징:**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창세기 3:1, 15; 계시록 20:2), 성경에서는 마귀를 인류의 첫 부부를 미혹한 옛 뱀으로 묘사합니다.
- **위험과 처벌의 상징:** 뱀은 독을 품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합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눈치채지 못하게 먹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창세기 47:17; 아모스 5:19).
- **목숨의 상징:** 성경에서 뱀에 관한 내용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때에도 뱀 모양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 모양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민수기 21:4-9). 예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들어, 누구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4-15).
- **아름다움·교활·지혜 등의 상징:**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은 바위 위를 지나간 뱀에 대해 커다란 놀라움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잠언 30:18-19).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예수께서는, 뱀을 가리켜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미주에서 소개하는 참고문헌 773쪽).

성경에서 비둘기와 관련해 등장하는 개념은 (1) 희생, (2) 부드러움, 충성스러움, (3) 평화, (4) 어리석음과 무분별함의 상징 등입니다.

- **희생의 상징:** 비둘기는 번제, 즉 불살라 바치는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레위기 1:14).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번제물이었습니다(레위기 14:21-22).

- **부드러움, 충성스러움의 상징:** 솔로몬의 노래 <아가(雅歌)>에서는 연인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1:15; 2:14; 4:1; 5:2, 12; 6:9). 비둘기는 부드러운 면을 지니고 있고 깃털이 아름다우며 배우자에게 충실합니다.
- **평화의 상징:** 인류를 심판하는 홍수가 끝나던 당시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며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했고 비둘기는 마침내 감람나무(=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빠졌다는 증거였습니다(창세기 8:8-10). 1년 동안의 심판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 **어리석음과 무분별함의 상징:** 비둘기를 어리석다고 묘사하는 내용을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호세아 7:11-12).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멀리 도망가려 했다는 점에서 요나는 참으로 ‘비둘기 같이’ 무분별한 행동을 했습니다(미주에서 소개하는 참고문헌 216쪽).

예수께서 사용하신 상징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한된 사명’을 맡기고 파송하시면서(마태복음 10:5-16) 세 가지 사항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1)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야 한다는 원칙, (2) 주어진 전도 기간 동안 지킬 사항들, (3)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치게 될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게 하면서 세 가지 동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양’이었습니다. 양은 미련하여 쉽게 먹이가 됩니다. 양은 목자가 잘 보호하고 안내해야 합니다(참조: 시편 23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한된 사명을 맡기며 두 번째로 사용하신 상징이 ‘뱀’입니다. 제자들은 뱀이 지닌 것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징은 ‘비둘기’였습니다. 제자들은 비둘기처럼 어떠한 해도 입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순진]하라”는 역설적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뱀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

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베드로후서 3:18).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이 만든 교단에 속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직한 윤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의 조직, 우리가 믿는 구원의 계획 등이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비둘기처럼 순진한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마태복음 5:38-48; 7:12).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원수로 대하던 사람이 스스로 쌓은 장벽을 허무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로마서 12:17-21). 악 앞에서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모습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새번역: 순진하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6:19). 악한 행동을 직접 해 보아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간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창세기 39장). 죄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할 때, 모든 죄를 직접 지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참조: 롬 13:11-13).

뱀과 비둘기를 동시에 닮아야 한다는 균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균형을 갖추어야만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역대상 12:32). 우리는 지금 매우 ‘이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반여성적이고, 반과학적이며, 동성애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등 부당한 공격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온순한 태도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베드로전서 3:15). 그리스도인들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온순함을 함께 드러낸다면, 거짓 철학과 교리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뱀과 비둘기를 동시에 닮아야 한다는 균형의 원칙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기 어려운 시대, 사람과 사람 사리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계 없는 진리는 교만으로 이어지고 진리 없는 관계는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대할 때(요한복음 3:1-15)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요한복음 4:1-45) 보이신 모습을 보면, 각각의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리를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유순하라는 역설적 원칙을 균형 있게 드러내심으로써 두 사람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문헌

- “Dove.”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Ryken, Leland, Wilhoit, James C. and Longman III, Tremper, ed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 1998.
- “Serpent.”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Ryken, Leland, Wilhoit, James C. and Longman III, Tremper, ed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 1998.

글쓴이: 세인 피셔

Fisher, Shane. “Paradoxes of Christianity: Wise as Serpents & Harmless as Doves,”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5, pp. 11-14.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승리하는 삶: 서론 / 16
사랑을 통한 승리 / 18
복음을 통한 승리 / 22
새 삶을 통한 승리 / 28
믿음을 통한 승리 / 38
소망을 통한 승리 / 44
말씀을 통한 승리 / 50
기도를 통한 승리 / 56
변화를 통한 승리 / 64

Considerable parts of these articles are based on the *Victory of Jesus!* lessons written by Ralph Weinhold and published by Truth for Today.

© copyright, 2012 by TRUTH FOR TODAY.

ALL RIGHTS RESERVED

승리하는 삶: 서론

희망을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힘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에베소서 2:1, 12). 그러한 사람은 거듭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이사야 59:1-2).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담겨있습니다(고린도전서 15:3-4).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드러내는 첫 단계는 과거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사도행전 3:38)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함을 통해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3-4).

믿고 침례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냅니다(사도행전 22:16). 죄사함의 침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고린도전서 6:19-20).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로마서 6:4). “허물로 죽은” 상태를 벗어나(에베소서 2: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고린도후서 5:17).

어리석음에 빠져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때때로 밀려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즉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삽니다(로마서 8:37).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승리를 쌓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두는 최후 승리는 “죽기까지”(계시록 2:10 공동번역개정) 충성된 모습을 잃지 않을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승리의 의미와 방법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한 승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창세기 1:26).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에베소서 1:3-6).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11-14).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승리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소중한 사람

시편 8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질문을 만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人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3-4)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와 별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알면 알수록 크고 놀랍습니다. 그 장엄함 앞에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며 창조주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소중한 여겨주시는지요?” 시편 8편을 계속 읽어보면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편 8:5-8)

“인자(人子)가 무엇이기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제한된 육체를 지니고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책임을 안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영적인 측면을 무시할 때,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죽음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요즘 주고받는 소식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사람을 연구하면서 인간 육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사람도 동물의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경제적 존재로만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육체적 측면의 제약이 있기에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부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창세기 1:27).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한복음 4:24).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귀한 특성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1서 4:8).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마태복음 22:37).

승리하는 사람

인간이 육체와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육체적인 동시에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영원한 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 등은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늘 남아 있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흥미를 끄는 것들, 사회적 성취 등으로 삶의 한 구석을 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의 빈 자리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싹튼 후에도 겸손과 순종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 삶에서 힘써 이루어야 하고 영원까지 계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때, 우리의 걸사람이 점점 늙어 힘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됩니다(고린도후서 4:16). 사람의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구나!’ 하는 깨달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이 나의 것이 되는 일은 지극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마태복음 25:46).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일입니다(에베소서 2:1; 로마서 6:23; 계시록 20:14).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육체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디모데 전서 5:6).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복음을 통한 승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문장부호 첨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1세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뒤나미스/두나미스(δύναμις)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 이름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하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그렇다면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은 것’이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전체’가 복음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1-4).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는, 복음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는 (1)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일과 (2)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 가리키는 “성경”은 『성경전서』에서 『구약전서』로 묶여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까닭은,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로마서 1:16-17).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다이어마이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십니다.

복음이 다이어마이트처럼 폭발력을 발휘하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참조: 로마서 1:5; 16:26).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에베소서 2:8).

우리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요소: 예수님의 죽으심

복음에 담긴 핵심 요소 중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5:3-4상반).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며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그 자리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죽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죽음으로(계시록 2:11)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그러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이사야 59:2).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는 장벽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닌 지혜와 힘으로는 이 문제에 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7).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 1서 4:9-10).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희생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와 불의에 대해 거룩한 진노를 느끼시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로마서 3:23). 오직 한 분만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삶을 사셨으므로(히브리서 4:15) 예수님 개인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짊어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크신 사랑을 지닌 예수께서는 잔혹한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진노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까지 겪으셔야 했습니다(마가복음 15:34).

우리의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요소: 예수님의 부활하심

복음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고린도전서 15:4).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강력한 기적이어서 사도들의 신앙에도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사도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던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던 유형의 메시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들]의 왕”은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실 메시야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둘러싼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제자들은 권력자들이 두려워 달아났고, 예수님을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여러 증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살아나셨음을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후 40일 정도가 지난 후 하늘로 들어 올려져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베드로전서 3:22).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요 주(主)들의 주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참조: 빌립보서 2:9-11).

복음에 순종함을 통해 얻는 승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로마서 10:17).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마련되었고, 그 안에 담긴 사실을 듣고 믿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완벽한 삶을 사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부활하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 등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예수께서 주신 계명들을 따를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헛됩니다(참조: 마태복음 7:21).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께서 지니신 권세에 의지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안으로 침례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영적인 옷’처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벽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의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로마서 6:3). 침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4).

침례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물속에서 받는 침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의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상징적으로 죽고 장사된 후 새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침례는 ‘믿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참조: 로마서 1:5; 16:26).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피가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피로 얻는 구원’입니다(Ralph Weinholt, *Victory of Jesus!*, Truth for Today [2012], p. 17).

결론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포함된 구체적 ‘사실’, 즉 우리가 죄들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구체적 ‘사실’뿐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과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과 성령이 선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접어들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향한 힘찬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새 삶을 통한 승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분명히 아는 것은 승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연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좋은 소식’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5:5). 사람의 몸을 갖고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히브리서 4:15).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새 삶을 살아갈 때에만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감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마태복음 5:48). 예수께서는 우리가 따를 완벽한 본보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베드로전서 2:21). 그리스도인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러한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하고,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삶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아내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2:21).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베드로 전서 2:24).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나서야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빌립보서 2:8).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서 그의 겸손한 발자취를 뒤따릅니다(빌립보서 3:10).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것처럼 약한 기초 위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기쁨과 평강 등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고 태도와 행동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은 잠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백성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장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구원의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본보기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영원한 빛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감

바울은 자기가 믿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바울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발휘하시는 능력에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그 일을 혼자 해내야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신다고 해서 사탄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안락으로 이끌고자 애씁니다. 그러한
미혹에 빠지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
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새번역: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
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
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빌립보서 2:12-13).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지닌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욕도, 힘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만 거기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좋은 소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로 살던 사람입니다(에베소서 2:2). 그러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요한1서 1:9).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충실히 살면,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감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가르침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심어주려 애쓰는 모든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 걸모습이나 경제적 지위 등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정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그리

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서』의 앞부분인 「구약전서」에도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은 신약에 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안에서 행하며 자유를 누립니다(야고보서 1:25).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4-7).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앞으로 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지닌 ‘새로운 정체성’은 이미 하늘에 속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까(참조: 빌립보서 3:20).

복된 삶을 살아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로마서 10:1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경을 더 부지런히 연구하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살아감

바울은 모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는 가장 큰 복인 ‘죄 사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브리서 9:12-14).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일 역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이루어집니다(참조: 고린도전서 6:19).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 등을 통해 듣거나 상상할 수밖에 없던 특별한 관계를 그리스도인은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기적의 능력을 부여하신 적이 있지만,

구약시대 지도자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성막이나 성소의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기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에 의지하여 살아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침례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일과를 위하여 아침에 옷을 입듯이, 침례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영적인 옷으로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사람이 옷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신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일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께서는 ‘죄 그 자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가르침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베드로전서 2:24). 이것이 복음에 담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2-13).

과거의 잘못이 족쇄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의심마저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격으로 은혜에 참여할 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1서 3:1-3).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यो,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19-22).

여기서도 “성소”는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제사장, 즉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무척이나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에베소서 3:12).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증보자이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Ralph Weinholt, *Victory in Jesus!*, Truth for Today [2012], p. 28).

결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고 새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중죄인’에서 ‘성도(聖徒)’로 바뀐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참고로, 성경에서는 평범한 ‘신도’와 특별한 ‘성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이 죽는’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며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

1.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바치며 성전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각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참고: 로마서 15:16).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어깨받이와 흉패 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출애굽기 28:9-12; 15-21).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을 때마다 어깨받이와 흉패에 새겨진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백성에게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히브리서 9:24-26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믿음을 통한 승리

죄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요한1서 5:4하반).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이유는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머리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함

짐승은 신앙을 지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은 영을 지닌 존재이고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지만, 믿음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

음에 담기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변화가 심하고 혼란스러운 나날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못 되기에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며 온전히 말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가슴으로만 믿는 믿음으로도 부족함

그때그때 받는 ‘느낌’에 바탕을 둔 채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당을 찾아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의 돈을 연보함에 넣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느낌이 들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니는 문제점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가득한 것 같더니 오늘은 기분이 안 좋고 믿음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수시로 바뀌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은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육체가 아닌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앞에 놓인 상황을 넘어선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변 상황과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느낌에 기대는 신앙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생활로 이어질 위험이 큼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감정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날씨에 따라 변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바탕을 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닻”을 지닌 것과 같아서(히브리서 6:19)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을 받는 상관 없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는 믿음이어야 함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느낌에 바탕을 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믿음에 이성과 감성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 즉 우리의 감성과 존재 자체와 이성과 의지, 그 모두를 갖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2:37).

믿음에는 생각이 작용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로마서 10:17). 믿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작용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굳건한 의지가 작용합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자 애쓰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교회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 고개를 들지라도 참석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꼭 해야 해!’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담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그 뜻을 따르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의 감정을 따를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에 따른 실천은 시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시는 길을 따라 꾸준히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의 인생길을 걷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에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이사야 40:8). 성경에는 과거의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① 구원받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찾아온 첫 오순절에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과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찢린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행전 2:38 새번역).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침례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범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나갔음을 뜻합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죄 용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②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신앙의 위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다윗의 신앙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자와 곰을 죽이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사무엘상 17:36). 성령께서는 신앙의 인물들이 경험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긴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③ 복음의 핵심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정확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됩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1:30, 31. 문장부호 첨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행동과 선한 행동을 실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선한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바울은 자기 안에 있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성령께서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로마서 6:6).

결론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의 이상을 느끼고 스스로 병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힘이 작용합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면 스스로 병원을 찾게 되듯이,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 명령대로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로 순종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소망을 통한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3-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소망을 지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진 소망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속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 시작 부분에 소개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 즉 복음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디모데전서 1:1).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게 될 구원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예언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첫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을 의미하는 이 예언에는 다행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포함된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3-4).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하듯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에 담긴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죽음 너머 영원까지 이어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품는 소망

창세기 3장 15절에서 희미하게 볼 수 있던 희망의 가능성은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담긴 뜻을 아브라함은 모두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이 모두 기록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

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나중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이사야 53:5).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주는 누군가가 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主)시니라”(누가복음 2:11).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였습니다(누가복음 19:10).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는 내내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소망을 전하신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삶을 버리고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탄생은 죄로 물든 불완전한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4).

그리스도를 따르며 간직하는 소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써 희망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인류에게는 구주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구주가 되려면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으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로마서 3:23).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의 기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의 소망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도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음을 드러냅니다(로마서 1:4).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아 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살아 있는 소망’에는 “찌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일이 포함됩니다(베드로전서 1:4). “유업(遺業)”은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유산은 가족이나 친구가 숨을 거두었을 때 받게 됩니다. 돈을 유산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받은 영적인 유업은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잠언 14:32). 악인은 순간의 쾌락과 편안함을 뒤쫓지만 삶을 마무리할 때 후회만 남게 되고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화롭게 예수님 안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통하는 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

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베드로전서 1:5).

이 말씀을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UBS5 본문: τοὺς ἐν δυνάμει θεοῦ

우리말 직역: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φρουρουμένους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διὰ πίστεως εἰς σωτηρίαν

믿음을 통해 보호받으며 구원을 향하는데,

ἐτοιμὴν ἀποκαλυφθῆναι ἐν καιρῷ ἐσχάτῳ

그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작용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기에 그러한 죄들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은 복음을 통해 옵니다. 복음에 담긴 내용,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내용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무조건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망을 품게 만드는 중

은 소식이지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主)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데살로니가후서 1:8-9).

결론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첫 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며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 안으로 장사됩니다. 물속에서 침례받고 물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새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로마서 6:3-4).

복음에 순종하는 일은 침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월계관]을 네게 주리라”(계시록 2:10).

말씀을 통한 승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디모데후서 3:16상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감동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고, 그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베드로후서 1:21).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기록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만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령께서 비추어주시는 영적인 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편집자 **참**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인간에게 몸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말씀으로 양육하심

아기의 탄생은 한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받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

빠하고(누가복음 15:10), 지역교회 지체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생이 삶의 끝일 수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영적인 영역에서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아기입니다.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베드로전서 2:2-3).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깨끗이 씻기는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로마서 5:5).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요한복음 3:5)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기는 젖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엄마와의 사랑이 커갑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영적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지만,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기처럼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심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6:63하반).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적인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담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성령께서는 새

로운 생명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속에 떨어질 때 결실로 이어집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틔울 수 없고, 싹이 나더라도 자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임한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밭이 길가의 흙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려면 간절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히브리서 4:1-2).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마태복음 13:8).

말씀으로 일깨우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기록했습니다(고린도전서 10:12).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기쁘게 잘 살아가다가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 행동하게 만듭니다(사도행전 2:37).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힘을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브리서 4:12-13).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철저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8).

이 말씀은 세상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마귀의 미혹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삶을 삽시다.

말씀으로 헌신하게 하심

그리스도인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사도행전 10:38).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시편 119:97). 신약시대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바뀌었고 따라야 하는 법의 내용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

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미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 애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더 많이 대할수록 자기 나름의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한편으로 성경 말씀이 서로 작용하면서 더 분명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담긴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편 119:10-11).

결 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그들 나름의 순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은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신명기 11:18).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고 싶지만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바울 사도가 삶의 마지

막 날들에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전하는 사람이므로, 인생의 막바지에서 바울이 젊은 전도자에게 전해 준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얻고자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론에 대신하여,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 몇 가지를 뽑아 정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디모데후서 2:7).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마지막 때. 그리스도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디모데후서 3:1-7).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5하반-17).

기도를 통한 승리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6-7).

예수께서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이 담긴 내용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사람들이 지닌 오해를 먼저 풀어주고 나서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영향이 널리 퍼져 있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지닌 생각과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부터 고쳐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1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렵습니다. 기도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자칫하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입에 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크게 반복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기도 내용은 욕심으로 가득찬 경우도 많습니다(야고보서 4:3).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9~13절과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된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면서 반복하여 암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에 해당할 것입니다. 굳

이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이 기도는 ‘1세기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참조: 마태복음 26:36-46; 요한복음 17:1-26).* 기도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므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자 주

관련 기사: 79쪽,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관해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은 독자는 uodia.org 사이트를 방문하여 ‘도서관 ▶ 주기도문 이해’ 메뉴와 ‘전도자 센터 ▶ 말씀 선포’ 메뉴 참고 바람.

하나님을 부르며 공손히 나아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됩니다(마태복음 6:9). 지극히 높고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그리스도인은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 예로, 다윗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송축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主)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富)와 귀(貴)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主宰)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역대상 29:10하반-13).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

작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해 오셨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살피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경외감과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그러한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입술에 열매처럼 맺히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시록 4:8-11).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보여주신 ‘모범 기도’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 여기서 10절 상반절의 내용,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신 내용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권능으로 임함으로써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교회 설립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골로새서 1:13; 히브리서 12:28; 계시록 1:9).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우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미래의 일이었지만(마태복음 3:2; 4:17; 10:7; 마가복음 9:1; 사도행전 1:6-8) 우리에게는 1세기의 한 오순절에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

리는 이 땅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 적용해 봅니다(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기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나님, 저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선하시오니,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시편 143:10 적용).
-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질서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영적인 면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해질 수 있도록 저부터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에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시편 119:2 적용).
-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처럼 우러르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마태복음 19:14 적용).
-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곳임을 잊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세상의 온갖 염려가 저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생

각이 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로마서 14:17 적용).

-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자란 생각으로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버지께 여러 차례 간구했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저에게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른 지체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둔한 저는 오늘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모든 측면과 함께 영원한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제 눈이 어두워 미처 못 본 것이 있다면 저의 모자란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를 아끼시는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던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누가복음 22:42 적용).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간구함

경제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를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그리고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고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6:24-33).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히 여긴다고 해서, 매일의 삶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측면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장만하며 살기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을 겪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하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마태복음 6:11). 예

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던 1세기 당시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이 말씀이 더 절실히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한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여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생계에 걱정이 없다면 욕심을 경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야 할 때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개를 돌려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신명기 8:11-18). 창고 크기를 늘리려고 약속을 잡아놓은 사람의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마태복음 6:34; 야고보서 4:13-15).

죄를 용서받고 미혹을 피할 수 있도록 간구함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지니는 심각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1세기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헬라이어: 빚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태복음 6:12-13).

“죄”와 관련하여 ‘빚지다’라는 헬라이어 동사가 사용된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빚을 진 자들이고, 크게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로마서 3:23-24; 마태복음 18:21-35). 그러한 사실을 뻗속 깊숙이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삽니다.

헬라이어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는 “유혹/미혹”을 뜻하기도 하므로, 문맥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혹 앞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우리를 미혹하지는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야고보서 1:13; 고린도전서 10:13).

참고로, 우리말 성경 번역에 사용한 “다만”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한국

어로 읽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의 경우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표현에 그 의미가 이미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으므로, ‘다만’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번역에서 “오직”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은 우리말이 주는 느낌처럼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단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야고보서 1:5) 겸손히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조언

기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커갈수록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24).

“안 된다”는 응답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확신에 찬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난 뒤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 본 부모라면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인지를 잘 압니다. 아이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즉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복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할 “골방”을 마련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마태복음 6:6).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은 ‘안쪽에 있는 방’입니다. 나만의 기도공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29).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이 생기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은 침례에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침례받는 날에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를 통해 추가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담긴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드려야 할 기도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필요한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를 통한 승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확신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참조: 빌립보서 4:13 흠정역; 요한복음 16:33).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남긴 기록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와 확신을 압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태도의 중요성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또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곤 합니다. 서점에 가 보면 긍정적 태도가 지니는 힘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이 나오기 아주 오래 전,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잠언을 기록하면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잠언 23:7). 잠언 23장 7절 말씀의 문맥에서 묘사하는 인물은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에 담긴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갖추게 되는 모습입니다.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녀야 실제로 잘하게 된다는 원칙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빠진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너무 쉽게 성장을 포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성질은 나도 어떻게 안 돼”,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어”,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는 식의 변명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갇아먹어 사탄과의 전투에서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사회적 위치, 신체적 장애 등을 영적인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지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내며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타인의 마음까지 움직여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정탐꾼들의 모습은 긍정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더라도 태도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민수기 13:30-33 새번역).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보고를 하

고 백성들까지 낙심시킨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민수기 14:22-23). 열두 정탐꾼 가운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열 사람을 포함한 20세 이상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기간에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민수기 14:29-38; 32:11).

태도를 바꾸면 가능해지는 것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령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페토스(ἀγαπητός)로서, 매우 각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이방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사랑, 즉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피부색, 경제력, 교육 수준 등을 뛰어넘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평강’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화평함’이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을 계속 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신티케]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 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빌립보서 4:2-3 새번역).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바울이 권고했다는 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차이점을 잘 극복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진정한 동지”에게 보내는 부탁과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평강, 즉 평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다툼 없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 돕는 평화’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서로 돕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가능합니다.

셋째,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야만 참된 행복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은, “주(主)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록했습니다(빌립보서 4:4).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행복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나 남녀관계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 만족하며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주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넷째,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 4:6). 우리 주위를 맴도는 걱정·근심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염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온갖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각을 조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시는 교훈을 더 살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좋은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덕이 되는 것과 칭송할 만한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서 4:8).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삶을 조절하며 영원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권하시는 생각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고귀한 것들입니다. 명상이나 참선 등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지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산법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버느라 바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까지 뒤로 미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잘못 접어들어 너무 멀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빌립보서 4:11-12). 삶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

빌립보서에서 확인하는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것처럼 승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확신’으로 가득찬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짐을 봅니다. 약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현실은 뚫고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좌절하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갖자’,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자’, ‘스스로 충족감을 느끼자’는 식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서 힘의 원천을 찾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세상에 속한 생각과 육체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찢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8).

결론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힘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의 인생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침례받아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사도행전 22:16)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사도행전 2:38)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후 다시 일어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제4장 긍정적인 삶의 출발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에게는 시작한 때(또는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가꾸는 일 역시 시작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일구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옆길로 빠진 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길을 벗어났다면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긍정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든, 여정의 중간에서 길을 잃었든, 혹은 다른 어떤 경우이든, 아래에 정리해 놓은 사항을 검토하면서 긍정적인 삶의 출발점에서 필요한 무엇이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주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날이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해야 합니다(참조: 베드로전서 2:2).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참조: 빌립보서 3:14).

둘째, 얻고자 하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강한 의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실제로’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내가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셋째, 이루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넷째,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에

계/무엇에 헌신할 것인지' 목록을 만들되,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마태복음 22:37-38).

다섯째, 용감하게 변화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합니다(디모데후서 1:7). 우리는 담대하게 노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사도행전 4:13).

여섯째,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성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시편 119:97-104). 긍정적인 삶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야 합니다. 그와 아울러, 자기 나름의 행동 계획도 꼭 필요합니다.

일곱째, 앞에 놓인 과제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가꾸려 노력하는 동안 마주치고 처리해야 할 장애물이 많음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앞으로 마주칠 일들에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인내하며 절제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위한 여정에서 '자기 조절'은 날마다 상황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베드로전서 2:5-7).

위에 정리한 여덟 가지는 8기통 엔진을 이루는 실린더와도 같습니다. 엔진을 구성하는 여덟 개의 실린더가 모두 부드럽게 작동해야만 '긍정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고원지대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정시에 출발하십시오. 긍정적인 접근을 하기로 선택할 때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추가 연구 및 토론 안내

관련된 성경 말씀

아래의 성경 구절들이 ‘긍정적인 삶의 출발점’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 로마서 8:1, 37.
2. 누가복음 9:62.
3. 요한복음 14:15.

맞으면 T, 틀리면 F

1. T F: 부정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
2. T F: 각 사람은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3. T F: 긍정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빈칸 채우기(한 칸에 단어 하나)

1. “_____을/를 제외한 모든 존재에게는 _____ 시점이 있습니다.”
2. “첫째, _____하지 않는 _____이/가 필요합니다.”
3. “_____인 접근을 하기로 선택할 때 _____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기

1. 긍정적인 삶을 일구려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2. 오늘 논의한 여덟 가지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3.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은?

나의 질문 정리해 놓기

- 1.
- 2.
- 3.

긍정적 행동의 증거

(안내) 이 과정을 진행하며 아래의 일곱 가지 항목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1. 이번 주에 나에게 가장 크게 힘이 된 생각
2. 나에게서 좋아진 점
3.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일
4.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를 도운 방법
5. 내가 괜찮은 사람인 이유
6. 한 줄 기도
7.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 일

글쓴이: J. J. 터너

Turner, J. J. *Building a Positive Life*. pp. 18-20.

Translated with the permission of J. C. Choate Publications.

ENGINE

위로가 필요할 때

내면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1)

“여호와여,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상실이 마치 다른 사람들 탓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짐 휴즈(Jim Hughes)의 경우,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자기가 보인 반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아내를 잃은 충격이 휩쓸고 간 뒤, 나는 나 자신이 인생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인생이 나와 내 가족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나는 엄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누군가 다가와서 기적을 행해 주기를 바랐다. 폐허가 된 삶을 치유해 주기 바랐다.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망가진 내 삶을 고칠 뜻이 없었다. 당시에 내가 느낀 감정은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의지를 갖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행복하고 충족된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화를 내며 인생을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했다.^{미주1}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애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애도 과정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스트버그(Granger E.



Westberg)는 그러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상황에 맞서 전투를 벌이기보다 애도 상태에 그냥 머무는 쪽을 선호할 수 있다. 슬퍼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매 순간마다 완전히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과 마주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애도 가운데 있는 것을 더 편안해한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려고 한다.^{미주 2}

익숙한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도 과정을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슬픔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주저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고, 내면의 치료를 크게 좌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격려와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지만, 애도 과정을 마무리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만 하듯, ‘애도 과정을 끝내려면 이러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실행에 옮겨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각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참조: 시편 55:22),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하는 요구와 함께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갈라디아서 6:2, 5 새번역).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마태복음 11:28-30; 사도행전 2:36-38),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마태



복음 16:24), 애도 과정을 점차 마무리할 것인지 슬픔이 완전히 에워싸도록 자신을 내버려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각자의 책임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방법

상실을 겪은 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도와 애도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처 입은 여러분의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 대한 책임 받아들이기

첫째, 책임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든, 혹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든, 여러분은 피해자 역할을 거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픔을 키우면 치유가 어려워집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을 곱씹다 보면 다시 살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상황 때문에, 운명 때문에, 또는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무력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 생각할 경우, 애도 과정 마무리에 필요한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목표 정하기

둘째, 미래를 위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세우는 목표는 엄청난 목표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좌절의 여정을 끝낼 때쯤 내가 어떤 모습이고자 하는지는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주께서 미리 정해주신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목표들입니다.

-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야 합니다(마태복음 6:33).
- 염려를 떨쳐버리고, 한 날의 삶을 한 번에 하나씩 살아야 합니다(마태복음 6:34).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마태복음 22:37-39).
-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합니다(마태복음 28:18-20).^{미주 3}

위에 정리한 것들에 더하여 여러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정하되, 이전과 달라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던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자.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갑자기 그를 머릿속에서 지우거나 그들 향한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떠난 이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슬픔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떠난 이와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떠난 이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계속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떠난 이가 곁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고인이 만약 지금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그를 잃은 슬픔에 계속 빠져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뀐 삶에 적응하자. 한 사람의 죽음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녁 식탁에 놓는 수저 개수가 달라 집니다. 돈 관리를 배우자에게 맡겼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일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새로운 일들에 적응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전에 하던 일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여 이전에 하던 일을 모두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매우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적절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에 더하여, 고인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책임을 여러분이나 다른 누군가가 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맡아 하던 중요한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맡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도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세우는 목표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필요한 모든 일을 계속해서 잘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심 분야를 찾자.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그에게 기울이던 좋은 감정을 다른 곳에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사람이 남겨 놓은 텅 빈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새로운 친구라든가 새로 시작하는 활동 등은 여러분 마음속의 텅 빈 자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게 될 수 있고, 재혼까지 결심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의 개수는 제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자.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참조: 갈라디아서 6:10).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느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내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한 위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고린도후서 1:3-4).*

편집자 주

내면의 도움을 받아 애도 과정을 마무리할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50권에서 다룬다.

미 주

¹Jim Hughes, *Good Grief and How to Experience It*, Class Notes, Ministries with Senior Adults,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9–13 January 2006, 35.

²Granger E. Westberg, *Good Grief*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54.

³Hughes, 41–42.

글쓴이: 코이 로퍼

Roper, Coy. “Seeking Help from Within” (Translation Part 1 of 2)

The Christian and Grief, pp. 38–40.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OF THIS STUDY APPEARED IN TRUTH FOR TODAY, PUBLISHED BY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INC., 2209 BENTON, SEARCY, AR 72143 USA. THIS UNOFFICIAL TRANSLATION IS DISTRIBUTED WITH THE PERMISSION OF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 Copyright, 2011, 2021 by Truth for Today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

(연재 3/4)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연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잘못된 기도의 예로 예수께서 말씀하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 아니라 동기도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올바른 방식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영적 경로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6:9-13]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더듬거리기까지 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경건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올바른 태도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함께 드러납니다.

2.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기 시작한 첫날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신 후 첫 번째로 돌아온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 내용은 교회가 설립된 오순절 날을 꼭 집어 지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나라의 임함’에 담긴 의미는 그 오순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 내용은, 교회가 설립될 오순절이 속히 오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일정을 확인해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날에 교회가 차질없이 시작되게 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편집자 주는 다음 쪽에 있음]

편집자 주

(1) 예수께서 이 땅에 강생하여 사역하시던 당시 ‘교회’와 ‘천국(=하나님의 나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셨고(마 16:18-19), (2)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눅 22:29-30; 고전 11:17-26; 행 20:7), (3) ‘천국’, 즉 ‘그 나라’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구성된 후 성장하여 꾸준한 결실로 이어진다(마 13:18-23; 눅 8:11-15).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어 확장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기도문’이 암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히 사역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기도에 넣으셨을까?”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려 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신실한 마음을 지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장소와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쓰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기도에서든,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치른 것과 비슷한 대가를 흔쾌히 치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속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정에서 빠뜨리시는 일이 없도록 기억을 떠올려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적으로 내려놓는 삶을 삽니다.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후퇴를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먼저 노력을 쏟은 후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흠정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를 살려] “너희는 이런 식으로[바꾸어 말하면 태도로] 기도하라”고 번역했음을 기억합니다.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전에’ 기도를 드린다. 여기서 글쓴이는 각자의 그리스도인, 특히 사역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되 기도를 잊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이다.

3.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 번째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담긴 내용은 탄원인 동시에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충분하고 어김없이 공급해주시는 사실을, 주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새 때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창고와 같은 저장소가 없어도 새들은 잘 지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일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안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누가복음 12:7).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지닌 사람에게 기도는 ‘시험 삼아 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갈망을 쫓겨 고통스럽게 올리는 요청을 크게 넘어섭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재치가 아닌 지혜가 더해지고, 능숙함을 넘어서는 능력이 더해지며, 두려움을 몰아내는 통찰력이 더해집니다.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28 말씀은, 문장의 형식만 보면 ‘모든 것’이 주어이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이다.

4. 기도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신 네 번째 요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뜻이,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공황을 베푸는지 엄밀히 측정하시고 저에게도 그만큼의 공황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천재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죄를 범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공황을 베푸시되,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황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황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베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의 다섯 번째 특성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가장 큰 필요들을 채우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리며,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모든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사람의 지혜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달렸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모든 바람직한 자질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도형식을 맹목적으로 반복한다거나 기도를 종교의식의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식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과 나아가는 중에 우리 내면에 지녀야 하는 고귀한 관점과 이해와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논의한 이 모든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역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본보기와 경험이 되어,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그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지닌 특수한 성격과 그에게 주어지는 신뢰의 정도가 다른 형제자매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앞에서 논의한 자질들이 성숙해져야 할 책임이 두 배는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자기가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밟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설교가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한 재료가 머리에 담은 지식일 뿐이고 원숙한 마음은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숙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전하면서 기억력에 의지하려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빠뜨리고 말입니다.

글쓴이: E. W. 맥밀란

McMillan, E. W. *The Minister's Spiritual Life*. pp. 80-83.
Translated with permission.

승리는 이것이니

요한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상길

5

9

13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주제로 새 노래를 만들어주신 전상길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노래와 아카펠라 강좌를 만날 수 있는 곳: spiritualsongs.kr

“BE HOLY FOR JOY AND PEACE.”

‘거룩한 삶에 깃드는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 리 스 도 의 교 회 선 교 회



엘림상담센터

ELIM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세미나실이 상담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 우선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심리검사

- 전문 상담사가 5회기 무료 상담 제공.
- 대면상담 중심, 줌(Zoom) 온라인 상담 가능.
- 상담사 : 이은형(기독교상담학 박사)
- 시 간 : 수요일 오후
- 장 소 : KC대학교 성서관 1층
- 전 화 : 02) 2607-0645



9 772734 157008

ISSN 2734-1577



49